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37호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코로나로 축소됐지만 최선 다할 것”**

안상혁 KBS 기자

**문 대통령 “체육인들 마음껏 운동할 날, 하루라도 앞당길 것”**

김성진 뉴시스 기자

**스포츠윤리센터, 전국체전에 인권감시관 파견**

김용석 뉴스핌 기자

### 스포츠폭력

**[단독]쌍둥이자매 사태에도 여전한 체육계 학폭...1년새 525건**

이준규 노컷뉴스 기자

**“지옥 보여줄게” 코치진 편애에 멍드는 야구 꿈나무들**

오지혜 한국일보 기자

**학교 운동부 활동 제한 교육부 지침, 전면 바뀌어야 한다**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http://www.sportscm.org)

# 전국체육대회 개막... “코로나로 축소됐지만 최선 다할 것”

[앵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어제부터 구미를 비롯한 경북 곳곳에서 일주일 동안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탓에 고등부만 참여하는 대회로 축소됐지만,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대표 포항제철고와 전북 대표 영생고의 축구 경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멋진 승부를 펼칩니다.

코로나19로 관중석은 텅 비었지만, 선수들의 열정이 초록색 그라운드를 가득 채웁니다.

[이현주/포항제철고 축구선수 "유관중으로 열렸으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나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저희를 응원해주셨을텐데... 대표로 출전한만큼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경기장에선 씨름 경기가 한창입니다.

오랜 기간 동고동락한 감독은 선수들이 힘들여 준비한만큼 제 실력을 발휘해주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김현섭/현일고등학교 씨름부 감독 : "학생들이 작년에 전국체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정말 2년 동안 동계훈련부터해서 피땀 흘리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는 17개 시도 선수단 만 4백여 명이 40여 개 경기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일반부와 대학부 없이 고등부 경기만 치러지고 있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경북체육회는 대회 기간 내내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하영/경상북도체육회장 : "경기장 방문도 (시도별) 1회 방문시 2명까지만 허용하고 민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관리 메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 가장 안전하고 내실 있는 성공체전을..."]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년 만에 열린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경북 12개 시군, 50여 개 경기장에서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 문대통령 “체육인들 마음껏 운동할 날, 하루라도 앞당길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체육인들이 많은 관중들의 열광 속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자유롭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면서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꽃피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더욱 고된 훈련으로 오늘을 준비했고, 국민들은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기다려왔다”며 “땀 흘려 한계를 뛰어넘은 날들을 믿고 후회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인들이 흘린 정직한 땀과 정정당당한 승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과 용기를 줬다”면서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를 외쳤고, 원팀 코리아의 패기 속에서 국민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인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즐거움 이상으로 체육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역시 아주 크다”며 “국민들은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백신 우선 접종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며 최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했다. 스포츠 산업의 코로나 피해 지원에 정부가 5000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큰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대회도 불가피하게 규모와 종목을 줄이게 되어 아쉬움이 무척 크지만, 국민들이 우리 선수들을 아끼는 마음은 결코 줄어들지 않다”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많은 관중들의 열광 속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자유롭게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선수들과 지도자, 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꽃피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체육은 누구나 어디서든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리고, 다양한 생활체육과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차별없는 스포츠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상에서 언제든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체육인들의 인권과 안전망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체육인복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은퇴 후에도 체육인들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체육대회는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영웅들이 이 자리에서 탄생할 것이며 그만큼 국민들의 자부심도 커질 것”이라며 “고등학생다운 패기와 열정, 누구 못지않은 실력과 품격으로 이번 대회를 빛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스포츠윤리센터, 전국체전에 인권감시관 파견

스포츠윤리센터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스포츠인권 감시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윤리센터는 오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상북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전국체전에 '인권감시관'을 파견해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폭력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 등 스포츠 인권 활동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인권감시관은 축구와 농구, 배구 등 21종목 경기장을 방문해, 전국체전 현장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비리를 예방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파견된 인권감시관은 전국체전 현장에서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언어·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체계, 경기장 및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다.

윤리센터는 이번 활동 결과를 추후 스포츠윤리교육 사례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해당 종목협회에 취약 부분의 보완·시정 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윤리센터는 스포츠 인권의식을 높이고 기관과 추진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메인 경기장인 구미종합시민운동장을 포함한 10여 개 경기장에 '스윤센 서포터즈' 등 홍보 인력 20여 명을 파견하고 공식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 [단독] 쌍둥이자매 사태에도 여전한 체육계 학폭...1년새 525건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져 배구계를 대표하던 인기 스타에서 추락해 쫓겨나듯 해외로 진출한 쌍둥이 자매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학폭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말까지 2021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6만1911명 중 5만4919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 결과 모두 326명의 학생이 545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신체폭력 또한 138건이나 됐으며, 성폭력 사건도 27건 발생했다.

가해자는 선배 학생이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료학생 111명, 감독·코치 등 운동부 지도자 47명, 개인코치 등 학교 밖 지도자 27명, 담당교사 6명 등이었다.



사건의 양태도 다양했다.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은 운동부 동급생에게 2019년부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사과와 접촉금지, 사회봉사 4일, 특별교육 9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 고등학교 검도 선수는 후배 선수 4명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해 징계를 받았다.

한 중학교 학생은 같은 학교 급우에게 폭행과 금품 갈취, 강제 사과 강요 등을 여러차례 한 사실이 발각됐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축구부 학생선수가 지난 3월 성추행을 저질러서 사과와 성교육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2개월 만에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른바 '카톡지옥'으로 불리는 사이버 폭력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면식이 있는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 만들어진 단체대화방에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함은 물론,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초대해 언어폭력을 가하는 사건도 있었다.

학생선수들을 향한 체육지도자와 교사의 폭력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고등학교 탁구부로 파견된 충남지역의 시 체육회 소속 지도자는 함께 훈련 중이던 다른 중학교 학생선수의 훈련 태도를 지적하며 뺨을 4대 때렸다가 시 체육회에서 해임됐다.

한 고등학교 핸드볼팀 지도자는 연습경기 후 경기력 하락을 이유로 나무 막대로 엉덩이를 때리는 체벌을 가하면서 욕설을 했다가 학교에서는 해임, 대한체육회로부터는 자격정지 1년의 조치를 받았다.

체육계 학폭은 폭행 가해자가 엘리트 체육인이 되기 위한 체육 지도를 받아 또래보다 신체적 우월함을 갖거나, 관계자들이 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위계폭력이나 상호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노출돼 있다는 점 때문에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재영·이다영 자매 사건으로 인해 체육계 학폭이 재조명된 데다, 지난해 발생한 고(故) 최속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성인이 된 이후의 체육계 폭력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학생선수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매번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 터지면 반인권적인 체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곳곳에서 나오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체육계 꿈나무들을 온전히 성장시키려면 실태조사나 사후 조치 뿐 아니라, 학생과 지도자 모두에게 적절하면서도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폭력을 일으킬 경우 체육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체계 또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지옥 보여주기” 코치진 편애에 멍드는 야구 꿈나무

서울 시내 유명 공립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들이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차별 대우와 가혹행위,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는 지난 8월 이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 내용엔 센터의 양대 조사 영역인 인권침해와 비리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어, 각각을 담당하는 조사1팀과 조사2팀이 합동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비윤리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기구다.

## 노골적 편애... 신입생 절반 이상 전학

해당 학교 야구부는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고 프로 선수를 다수 배출하는 등 국내 대표적 야구 명문으로 꼽힌다. 센터는 감독과 코치 2명으로 구성된 이 학교 야구부 코치진을 성토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는데, 신고 내용에는 △차별 대우 △폭언 및 가혹행위 △배임 및 횡령 의혹이 포함됐다. 신고자는 당사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피해 사례를 여러 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 야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치진은 소수 학생만 편애하면서 선수단을 불공정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선 △선발 명단 제외 △불성실한 지도 △비난 등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범죄 증거가 남는 가혹행위보다는 티가 안 나는 심리적 압박을 주로 가했다"면서 "학생이 무력감을 느껴 제 발로 팀을 떠나게 만들려고 지능적으로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야구부에 들어온 신입생 선수 26명 중 절반을 훨씬 넘는 17명이 전학을 갔는데, 상당수는 코치진의 부당 대우 때문에 학교를 떠났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다음 장 계속

가혹행위와 폭언도 신고됐다. 신고자와 본보가 입수한 문건 등에 따르면 해당 코치진은 한쪽 어깨가 반쯤 탈골된 학생에게 배팅볼(타격 연습을 도우려 던져주는 공)을 수백 개를 던지게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같으면 머리에 총을 쏘서 죽였을 것"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배임·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감독이 학교 동문회 기금으로 마련되는 야구부 장학금 수혜자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 친분이 있는 무자격 학생을 추천했다거나, 코치진이 야구부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심적 고통에 3개월 새 7kg 빠졌다"**



코치진에게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김지안(가명)군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올해는 3개월 만에 체중 7kg이 빠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중학생 시절 두 번이나 우승 멤버에 이름을 올리면서 촉망받던 그는 고교 진학 후 기량이 좀처럼 향상되지 않자 코치진의 차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후배보다 실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등 수시로 망신을 주더니, 급기야는 "포지션을 바꾸든지 전학을 가라"고 압박했다는 게 김군 측 주장이다.

코치진이 출전은커녕 훈련 기회도 공정하게 주지 않아 따로 사설 레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김군은 "내가 훈련할 때 코치님들은 휴대폰만 보고 감독님은 아예 방에만 계실 때가 많다"면서 "좋아하던 야구를 그만두고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들은 코치진이 철저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수에 대한 호오를 결정하기 때문에 눈 밖에 나더라도 해결책이 없다고 호소했다. "보통 입학 초기 첫인상으로 (선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노력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왔다.

**야구계 "혐오스러운 지도 방식" 비판**

센터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건 처리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조사된다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정한 뒤 문체부에 관련 기관에 징계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구인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코치진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프로팀과 고교 야구부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A씨는 "학생들은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 야구부 사정에 정통한 B씨는 "지금 코치진은 경쟁심을 북돋워 아이들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팀을 분열시키고 있다"면서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무에타이협회 등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가입 승인

<https://www.mhnm.com/news/articleView.html?idxno=86201>

'코로나 특수 골프장 배짱영업' 전남도의회 개선 촉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6\\_0001604208&cID=10809&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6_0001604208&cID=10809&pID=10800)

전국체전, 고등부 분리를 제안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14153.html>

여자 테니스의 상징 킹 성차별의 벽 깨뜨렸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42363](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42363)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성범죄자 채용했다가 감사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099100051?input=1195m>

김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신호...국비 33억원 확보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0\\_0001608897&cID=10810&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0_0001608897&cID=10810&pID=10800)

당진시, 코로나19 확산 여파 충청남도체육대회 취소

<https://www.news1.kr/articles/?4456276>

서울시, 530억 규모 체육진흥기금 10년만에 첫 성과평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8139100004?input=1195m>

동작구 실외 체육시설 6개소 다시 문연다...백신 접종해야 이용

<https://www.news1.kr/articles/?4455597>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